



# 선전으로서의 도서 번역

## 미군정기 미국 도서 번역 활동의 전개와 의미\*

**차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해방 이후 미군정기 3년 동안에 미국이 한국에서 전개했던 다양한 선전·문화 활동 가운데 특히 도서 번역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해당 시기에 미국의 도서 번역 활동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었는지 개괄적으로 조명한 후에, 실제로 어떤 성격의 도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번역출간(역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도서들의 역간이 한국의 출판계와 독서계, 그리고 한국인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할 것이다. 자료 분석 결과, 1946년 이후 미국이 한국을 이념적 전쟁터로 간주해 선전·문화 활동을 강화할 무렵부터, 군정청의 일부 부서와 관리들에 의해 도서 번역 활동이 시작되었고, 1947년에 설립된 미국공보원에 의해 미국무성의 도서 번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군정기에 미국의 직·간접적인 관여로 역간된 도서는 총 10종을 넘지 못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도서들이었고, 번역과 출판 뿐 아니라 배급 과정에서도 미국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한국 출판계와 독서계의 지형을 바꾸고 한국 국민의 이념적 정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핵심어:** 미군정기, 냉전, 선전, 미국 도서 번역

---

\* 이 연구는 2016년도 충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jycha@cnu.ac.kr](mailto:jycha@cnu.ac.kr)

# 1. 머리말

이 연구는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3년간의 점령 시기에 미국이 한국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펼친 다양한 선전·문화 활동 가운데, 도서 번역 출판 부문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 미군정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구가 지난 30여 년 동안에 국내·외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학 분야에서도, 미군정의 언론 통제와 적산 배분을 통한 언론 구조의 재구성에 대한 연구(예컨대 박용규, 1988; 김민환, 1991)나 선전 관련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연구(예컨대 차재영, 1994; 장영민, 2001) 등 다수의 성과물을 산출했다. 대중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 영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나 영향에 관해서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김창남, 1986; Armstrong, 2003),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특히 미국의 도서 번역 출판 활동에 대한 연구가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도서가 가진 선전 도구로서의 유용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념 전쟁의 무기로 활용했다(Hench,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기 미국의 도서 번역출간(역간) 활동은 그간 소홀하게 다루어졌으며, 한국에서 미국의 도서 번역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이후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김용권, 1967; 허은, 2013). 하지만 미군정기에 이미 미국 정부 기관들에 의해 도서 번역 활동이 진행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차재영, 2014).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미군정기에 미국의 도서 번역 활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었고, 어떤 성격의 도서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역간되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에, 추가적으로 결론에서 이 같은 도서들의 역간이 한국의 출판계와 독서계, 그리고 한국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정부는 자국 문화의 보급을 통해 전 세계에 미국이 지향하는 신념이나 가치 등을 확산시킴으로써 정치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으며,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등의 미군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이 같은 문화 정책을 가장 공격적으로 시행했다(김균, 2000). 점령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문화적 개입은 과거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던 패전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교육(reeducation) 혹은 재정향(reorientation)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지만, 실제로는 다가올 미·소간 냉전구도를 예측하고 정치경제적 차원 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Saunders, 1999; Armstrong, 2003). 이를 위해 미국은 점령 지역에서 미국 도서와 잡지 보급, 미국 영화 배급,

미국 문화 전시, 미국 대중음악 보급, 미국 문화원 및 교육기관 설립, 미국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양상은 각 점령 지역의 내외적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여기서 한국과 함께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지휘 하에 있었던 일본에서 미국이 펼친 도서 번역 활동을 살펴보자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미 모든 점령 지역에서 미국 도서를 현지 언어로 번역해 보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독일의 경우와 달리 일본에서는 번역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대신에 영어 독해력을 가진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영어 원서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수정했다(Hench, 2010). 하지만 일본 출판사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되어 일본어 도서들을 다수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 원서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무성이 일본을 위해 미리 확보해 두었던 다량의 해외보급판 도서들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헨치(2010)는 일본에 인접한 또 다른 피점령국인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도서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설령 한국에서 일본과 유사한 계획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한국에는 영문 원서를 번역하거나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보다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일본 출판사들은 외국 도서 번역 출판에도 힘썼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동경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공보교육과(CIE)가 검열을 하는 동시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Hench, 2010). 공보교육과는 전쟁성으로부터 번역권이 확보된 미국 도서의 목록을 전달받아 저작권료 경매 과정을 거쳐 일본 출판사들에게 출판 권리를 지정했지만, 일본 점령 초기 미국 도서의 번역 활동은 종합적인 기본 계획도 없이 진행되어 지지부진했다. 1948년 5월에 가서야 비로소 연합국총사령부가 일본에서 번역 도서의 출판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했는데, 주요 승인 기준은 일본 국민의 민주주의적 재정향이라는 원래의 점령 목적 외에, 점차 냉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반영해 공산주의의 봉쇄와 미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 제고라는 새로운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었다(Hench, 2010; Ochi, 2010).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예하 부대인 24군이 점령, 통치했던 한국에서도 미국 도서의 번역 출판 활동이 대체로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 출판업계의 사정이 일본에 비해 훨씬 열악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번역 도서의 출판 실적은 더 저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미군정기 미국 도서의 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면, 먼저 김용권(1967)은 근대 이후 한국에서 미국문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 소개되고 연구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주로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도서가 번역 출판된 경과도 검토하였다. 김용권은 1951부터 1966년까지 미국공보원 출판과가 미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서적들을 총 412종을 간행했다고 밝혔지만(144쪽), 그는 미군정기를 과도기로 간주하면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미국 도서의 역간 작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국의 번역문학사 연구에 일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는 김병철(1975)은 개화기 이후 1950년까지의 서양문학 번역의 전개과정을 다루면서, 미군정기 번역 출판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크라브첸코(Victor Kravchenko)의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I Chose Freedom*)〉 상, 하권과 오웰(George Orwell)의 〈동물농장(*Animal Farm*)〉 등 미군정기에 출간된 번역서들을 소개하면서도, 그것들의 역간 과정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문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미국 도서 번역은 대체로 무시되었다.

이중연(2005)은 사회문화사적인 접근을 통해 미군정기 남한의 도서 출판 부문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당시 국내 저작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생긴 지식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번역서들이 다수 출판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군정 초기에는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대체로 소련에서 출판된 번역본을 원본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급조된 번역으로 간행된 좌익 서적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판되기는 했지만, 영·미권 도서들도 상당수 역간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국내 문헌자료에만 의존한 탓인지 미국이 한국의 번역 출판 부문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허은(2008)은 군정청 공보부와 1947년에 주한 미군사령관 직속으로 설치된 미국공보원(Office of Civil Information: OCI)의 선전 활동을 분석하면서, 〈세계신보〉, 〈농민주보〉 등의 순 한글 신문과 〈문화·풍속〉 등의 잡지 발행, 그리고 여러 지역에 설치된 미문화원(Information Center)의 미국 도서 열람 서비스 등을 다루었다. 하지만 그는 군정기 미국공보원의 번역 출판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공보원의 도서 번역 사업이 195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김용권(1967)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박지영(2009)은 미군정기에 한국의 지식인들이 번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인식과 당시의 번역 현황, 그리고 번역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맥락을 분석했다. 그는 1947년에 좌파 서적의 압수와 함께 한국 출판계에 대한 미군정의 검열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선행 연구(김군 2007)에 의존하여, 미군정의 번역 정책이 1947년 5월 미국공보원(OCI)의 설립 이후 각 지역에 설치된 미문화원의 업무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미국공보원이 직접 번역 출판 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차재영(2016)은 1950년대 한국에서 미국무성의 주도로 시행된 미국 도서 번역 사업의 전개과정과 목적, 그리고 성과 등을 분석하면서, 한국에서 미국 정부의 도서 번역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초가 아니라 미군정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 문서 자료들을 인용해 미군정기 말에 골트(Tom Galt)의 <국제연합과 세계평화(How the United Nations Works)>, 오웰의 <동물농장>, 그리고 크라브첸코의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 등 최소한 3종의 도서가 미국공보원(OCI)에 의해 역간되었다고 밝혔다(214쪽). 하지만 그의 연구도 미군정기에 미국 도서 번역 출판 활동이 전개된 과정이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발판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첫째 미군정기에 미국의 도서 번역 출판 활동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미국이 어떤 목적 하에 어떤 방식으로 도서 역간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도서들은 각각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 도서들의 역간이 한국의 출판계나 독서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해볼 것이다.

이 연구는 비판적 역사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해외 자료는 미국 국가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미국 정부 문서를, 국내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주요 도서관에 소장된 문헌들을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적절히 밝혀지지 않았던 미국의 도서 번역 작업의 전반적인 맥락과 윤곽을 파악하고, 그것이 한국의 출판계와 독서계,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념적 정향에 미친 영향을 기술했는데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 2. 미군정기 미국의 도서 번역 출판 활동의 전개

미군정기 3년 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군정청의 공보부와 미군사령부 예하의 미국공보원을 통해 선전·문화 정책을 수행해나갔다(차재영, 1994; 장영민, 2001). 특히 1946년 6월에 파울리(E. Pauley) 미국 대통령 특사의 남북한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선전·문화 활동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울리 특사는 방문 결과보고서에서 한반도를 '이념적 전쟁터'(ideological battleground)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남한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선전 활동과 교육 캠페인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트루만 대통령은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FRUS*, 1948, pp. 706~708). 이 시기를 전후해 군정청 공보부의 활동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듬해 미군사령관 직속의 미국공보원이 설립된 것도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선전 활동이 강화

되는 맥락 속에서, 군정청의 관련 부서들과 미국공보원은 미국 도서를 역간하는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군정청과 미국공보원의 도서 번역 출판 활동을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냉전기 미국의 해외 도서 관련 사업에 관한 대표적 연구자인 반하이젤(Barnhisel, 2013)은 “미국무성의 국제공보처(IIA)가 도서 번역 사업(Books in Translation Program)을 시작한 것은 1940년대 말이었고, 그것은 1953년에 해외공보국(USIA)으로 이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p. 198). 한국에서 미국의 도서 번역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946년 이후 군정청의 일부 부서와 소속 관리들이 독자적으로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국 도서를 번역 출판해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1946년 3월에 공보부 여론국(Public Opinion Bureau)의 정치교육과(Political Education Section)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유포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그것의 시행을 위해 도서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했다는 점이다.<sup>1)</sup>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보급이라는 정책 목표는 군정청의 다른 부서에도 공유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46년 11월에 미국의 맥밀란사가 발행했던 〈민주주의 교육법〉이라는 도서를 번역 출판했고, 1947년에는 문교부의 관리였던 최병철이 듀이(John Dewey)의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을, 문교부 차장(1945~47)과 부장(1947~48)을 연임한 오천석이 베넷(Stephen Vincent Benet)의 〈아메리카민주주의성장사(America)〉를, 그리고 외무처 관리였던 최우철이 양칭쿤(Ching-Kun Yang)의 〈미국의 대학생활(Meet the USA: Handbook for Foreign Students)〉을 역간했다.<sup>2)</sup>

또한 군정청 공보부는 미국 도서의 역간을 위해 필요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동경의 태평양지역 사령부의 〈주한 미군정 요약 보고(Summaton, 1947.1.)〉 16호에 의하면, 한국의 군정청 공보부가 일본의 연합국최고사령부 공보교육과처럼 도서 번역 사업을 위해 전정성의 대민사업국이 이미 저작권을 확보한 미국의 저작물들을 한국 출판사들이 무료로 번역 출판할 수 있도록 주선했을 뿐 아니라, 아직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저작물을 한국의

---

1)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1948). History of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raft).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Box 39.

2) 군정청 공보부도 이 같은 정책 수행을 위해 관련 도서를 직접 출판하기도 했지만, 번역서를 간행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재영(1994)은 군정청 공보부가 1947년 1월에 피셔(J Earnest Fisher)의 〈민주주의적 생활〉을 역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셔 박사는 일제하의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연회전문의 교수를 지냈고, 해방 후에는 군정청 공보부의 정치교육 고문을 맡았는데, 그는 우리말에 능통해 이 책의 원고를 한글로 집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인철, 1996; 허은, 2008; An, 2010).

잡지 편집자들이 번역 게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들을 대신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정청 공보부는 한국 출판사나 잡지사들을 위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하지만 뒤에서 상술 하듯이, 당시 한국 출판계가 처해 있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군정청 공보부가 실제로 미국 도서들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이 군정청의 일부 부서와 관리들의 도서 번역 활동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기 한국에서 미국 정부의 도서 번역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것은 1947년 5월에 미국공보원이 설립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문서에 의하면, 이에 앞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에 한국은 미군의 점령 하에 군정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성이 아니라 전쟁성의 관련 부서인 대민사업국이 번역 사업을 관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차재영, 2014). 1947년 2월 중순에 전쟁성의 대민사업국은 군정청에 한국의 번역 사업에 적합한 종류의 도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sup>3)</sup> 이에 대해 미국공보원의 초대 원장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던 스튜어트(James Stewart) 군정청 공보부 고문은 회신에서, “도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제한되어 있고 용지와 유능한 번역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책들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과학, 의학, 국제관계, 민주주의와 미국의 생활양식 등을 다룬 도서들이 확보”되기를 희망했다.<sup>4)</sup>

미국공보원은 설립 초기에 이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듯이 보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도서들의 저작권 확보를 요청해 전쟁성의 대민사업국으로부터 재고를 지시받기도 했다. 예컨대 1947년 6월에 미국공보원은 도서 번역 사업을 위해 오웰의 〈동물농장〉을 포함한 16종의 도서들에 대해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민사업국은 “한국의 용지 공급량이 크게 부족해, 귀하가 계약 체결을 요청한 책들이 계약에 명시된 시점까지 실제로 역간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현지 방문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sup>5)</sup> 그리고 대민사업국은 1947년 9월 하순에도 미국공보원에, “1947년 9월 16일자와

3) Letter from Daniel Noce, Chief, CAD, War Department to Chief,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SAMGIK, February 18, 1947, RG 306, US Information Agency, Information Center Service/Publications Division/Translation Branch(이하에서는 Entry P. 52로 표기), Subject Files: 1946-1963, Box 4.

4) Letter from James Stuart, Chief,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SAMGIK to Chief, CAD, War Department, March 10, 1947, RG 306, Entry P. 52, Box 4. 참고로 1946년 9월에 미군이 현지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군정청을 ‘남조선과도정부’라고 개칭하는 동시에 각 부서의 책임자로 한국인을 임명함에 따라, 당시 군정청 공보 부장은 이철원, 스튜어트는 공보부 고문이었는데, 이 서신에서 그는 자신의 직책을 공보부 책임자라고 기재했다.

17일자 텔레타이프와 케이블을 통해, 귀하가 최종 계약을 요청한 도서는 총 407종이고, 이 중에 다수가 500쪽 이상의 분량<sup>5)</sup>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용지 부족 현상을 고려해 이 도서들에 대한 계약 요구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sup>6)</sup> 실제로 1947년 9월 초에 미국공보원은 전쟁성의 대민 사업국에 발송한 공문에서, 한국 출판사들이 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수차 요청한 바와 같이 역간을 위해 특정 출판물의 편집(발취와 요약)을 허용해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sup>7)</sup>

하지만 미국공보원이 도서 번역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군정이 종식될 때까지 미국공보원이 역간을 주도한 도서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1949년 7월 1일부로 한국과 관련된 업무가 육군성(전쟁성)에서 국무성으로 이전되기 직전에 인수인계를 위해 육군성 대민사업국의 관련 부서 책임자가 주한 미국공보원에 도서 번역 사업의 결과 보고를 요구했을 때, 현지 담당자는 미국공보원이 3종의 도서를 번역 출판했다고 회신했다.<sup>8)</sup> 그것들은 1948년 8월에 출판된 골트의 <국제연합과 세계평화>, 1948년 9월에 출판된 오웰의 <동물농장>, 그리고 1948년 9월과 1949년 3월에 각각 상·하 권으로 출판된 크라브첸코의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 등이었다.

여기서 오웰이 영국 작가라는 점에서,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미국인의 저서는 사실상 단 2종뿐이었던 셈이다. 이 도서들의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골트의 저서는 UN의 조직과 활동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개설서였고, 오웰의 것은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를 풍자한 소설이었으며, 크라브첸코의 것은 공산주의 국가를 탈출한 전직 소비에트 관리의 수기였다. 이 같이 미군

5) Teleconference with Stewart, OCI, Korea prepared by Mrs. Flunder, ICM, CAD, War Department, July 15, 1947, RG 306, Entry P 52, Box 3. 참고로 대민사업국의 도서 번역 사업 담당자는 이 통신문에서 “전쟁성의 번역 도서 선정 정책에서는, 재정상의 주제와 관련해 미국 저자의 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영국 작가인 오웰의 <동물농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정부는 일찍부터 저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동물농장>을 미국의 대외 선전 정책에 잘 부합하는 도서로 평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Teleconference with Mr. Stewart, OCI, Korea prepared by Mrs. Flunder, ICM, CAD, War Department, September 24, 1947, RG 306, Entry P 52, Box 3. 하지만 이 407종의 도서 목록은 같은 문서함에서 찾을 수 없었다.

7) Letter from Margaret Gill, Field Director, OCI, USAFIK to Chief, CAD, War Department Special Staff, “Fiscal Year 1948 Contract for Translation Rights,” September 5, 1947, RG 306, Entry P 52, Box 4.

8) Letter from Michael Weyl, Chief, Libraries and Book Rights Section, CAD, Army Department to USIS, American Mission in Korea, June 6, 1949; Letter from Walter H. Drew, Editor, USIS, Korea to Michael Weyl, Chief, Libraries and Book Rights Section, NYFO, Reorientation Branch, CAD, Army Department, October 16, 1949, RG 306, Entry P 52, Box 4. 참고로 1949년 1월 1일부로 OCI의 업무는 USIE(혹은 USIS)로 승계되었지만, 미국공보원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정기 미국공보원에 의해 번역 출판된 도서는 종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주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미국공보원의 번역 출판 활동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은 스투어트가 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점령군사령관 하지(J. R. Hodge) 중장에게 제출한 '선전 활동 계획서'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스투어트는 신문, 라디오, 영화, 포스터, 전단지 등의 매체를 활용한 모든 부서의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도서와 관련해서는 도서관 프로젝트인 공보센터가 전쟁성의 대민사업국의 지휘를 받을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번역 출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sup>9)</sup> 이것은 당시 대단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던 국내외 정치 상황 속에서, 점령군의 선전 부문 책임자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도서와 같은 느린 매체(slow media)보다는 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팸플릿 등의 빠른 매체(fast media)를 선호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Henderson, 1969).

또한 스투어트는 1949년 말에 국무성에 발송했던 공문에서 미군정기 미국공보원의 도서 번역 사업이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이유를 부분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공보원이 한국 출판업자에게 미국 도서에 대한 번역 출판 권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sup>10)</sup> 첫째 한국의 출판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빠져 있었고, 둘째 한국이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 저작권법조차 부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의 출판사들은 대부분 자본 규모가 영세하고, 용지 부족 등으로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데다 독자들의 구매력이나 수요도 낮아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도서의 역간을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번역 출판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공보원이 한국의 출판업자들에게 미국 도서의 번역 출판을 장려했다면, 그것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충돌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sup>11)</sup>

이처럼 미군정기 미국 도서 번역 출판 활동은 군정청의 부서 및 소속 관리들과 미국공보원에 의해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두 절에서는 이 두 부문을 각각 한 절씩 나누어 미국 도서 역간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

---

9) Memorandum from Jame L. Stewart to Commanding General, XXIV Corps., "Propaganda Plan," April 14, 1947, RG 554, Adjunc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 1945-1949, Box 21.

10) Despatch No. 755 from American Embassy, Korea to Department of State, "Copyright Assignment," December 1, 1949, RG 59, Decimal File 1945-49, Box 4726.

11) 스투어트의 이러한 해명을 뒤집어보면, 실제로 미국공보원이 관여해 역간했던 3권의 도서들은 최소한 그것에게는 특별히 중대한 가치를 지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행되었고, 그 도서들의 성격은 어떠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 3. 군정청 부서와 관리들의 도서 번역 출판 활동과 역간 도서의 성격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미군정기에는 미국공보원뿐만 아니라 군정청의 공보부도 도서 번역 사업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고, 또한 군정청의 일부 부서와 소속 관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미국 도서들을 직접 번역 출판했다. 아래에서는 군정청 부서들이나 소속 관리들의 번역 출판 활동을 검토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서 도서들의 역간 과정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확인 가능한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1946년 11월에 군정청 문교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차질 없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히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미국의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민주주의 교육 방법의 지침을 담은 〈민주주의 교육법〉이라는 도서를 번역 출판했다. 이 번역본은 앞 절의 각주2)에서 언급했듯이, 원저자의 이름과 원저의 제목을 밝히지 않은 채, 머리말에서 뉴욕의 맥밀런사에서 발행된 〈민주주의 교육법〉을 번역해 소개한다고만 기술하고, 관련지에도 군정청 문교부를 저작 겸 발행자로 표기하였다(군정청 문교부, 1946).<sup>12)</sup> 이 도서는 주로 각급 학교 교사들과 아직 교육과정을 밟고 있던 예비교사들에게 배포되어, 전자에게는 관련 수업의 지침서로 후자에게는 강의 교재나 보조 교재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번역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아동들에게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와 원리에 대한 지식을 계발토록 할 것 등 민주주의 교육의 10가지 일반적인 목적을 제시한 후에,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세부적인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처럼 이 책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식 민주주의를 교육하기 위한 지침서라는 점에서, 한국 학생들이 여타 서구 국가들의 다양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배양할 기회를 차단하거나 방해했을 수도 있다.

1947년 8월에는 군정청 문교부의 편수시였던 최병철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을 번역

---

12)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당시 한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도서의 역간을 위해 군정청 문교부와 전쟁성의 대민사업국 사이에 주고받았을 교신 기록을 발견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보다 정확한 사유를 알 수가 없다.

해 연학사에서 발행했다(김상훈, 2015; 홍웅선, 1991). 당시 서울대 사범대 학장이던 장리육은 서문에서 “존 듀이 교수의 교육 철학을 가장 완전히, 또는 명세히 진술한 획기적 저술”이라는 평을 소개하면서, 이 책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Dewey, 1916/1947, 1쪽). 역자인 최병철도 머리말에서 “조선 교육을 하루 바빠 민주화하기 위하여”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번역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출판업계의 부득이한 사정(아마도 용지 부족)으로 원저의 전체 26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14장까지만 번역했다고 밝혔다(4쪽).

미군정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교육정책과 교육사상을 분석한 김동구(1995)에 의하면, 이 번역서는 직전 및 현직 교육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 번역서가 원본의 절반 정도를 다루면서 듀이의 주요 관점을 담은 내용만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고, 일부 용어의 오역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인지 미군정 종식 이후인 1948년 11월에 군정청 문교부장을 지냈던 오천석이 다시 이 책의 26장 전체를 보다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밝히면서, 김동구(1995)는 “이 책을 제외하고는…미군정 기간에 미국의 교육사상을 수용하는 데 현저하게 공헌한 번역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151쪽).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은 ‘교육철학입문’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20세기 초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철학을 설교한 저서로서, 그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고,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성을 배양해주는 요소로 이론이나 지식과 결합된 실행과 경험을 강조했다. 이 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초반부는 교육의 개념과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중반부는 민주적 가치라는 시각에서 교육의 목적과 특징을 기술하며, 후반부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방법, 내용, 효과 등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의 교육철학에 대해 논구하고 있다(홍성연, 2014). 이러한 듀이의 교육철학은 당시 한국의 교육계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지만, 일부 독일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미국에 적합할지 몰라도, 문화적 전통이 다른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아나미, 2004).

다음으로 1947년 10월에는 오천석이 베넷의 〈아메리카민주주의성장사〉를 번역해서, 교과서를 주로 제작하던 조선교육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하고, 국제문화공회의 이름으로 발행했다.<sup>13)</sup> 역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역간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국가 건

13) 참고로 이 번역본에는 저자의 이름이 빈센트 비바로 나와 있는데, 빈센트는 저자의 미들네임이고, 퍼스트네임은 스티븐이다.

설의 중대한 과업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지난 3백 년 동안 얼마나 용감한 싸움을 싸워 왔고, 또는 오늘날까지도 싸우고 있는가함을 우리 동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Benet, 1944/1947, 2쪽)이라고 번역 동기를 밝혔다.

그리고 이 번역서의 제목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베넷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영국 청교도들의 정착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 미국의 역사를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줄기찬 투쟁의 과정으로 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했다. 그는 이 책에서 독립전쟁, 헌법제정, 건국의 아버지들, 서부개척 시대, 아브라함 링컨, 남북전쟁, 산업발전, 강대국으로의 부상,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다루었는데, 그는 원래 역사가가 아니라 시인이자 소설가였기 때문인지 미국의 역사를 장편 서사시처럼 기술했다.

흥미롭게도 이 번역서는 후일 대외공보국(USIA)이 간행한 <해외발행도서목록>에 1950년도 국무부의 도서 번역 사업에 의해 동일한 역자(오천석)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sup>14)</sup> 실제로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4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주한 미국대사관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국제적 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도서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국무성은 베넷의 저서를 포함한 3종의 도서에 대한 한국어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고 통보했다.<sup>15)</sup> 국무성의 도서 관련 부서 직원들은 저작권 문제 등을 검토하면서, 베넷의 책이 1947/48/49년도 한국어 번역 사업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주는 어떤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sup>16)</sup> 이후에 국무성은 곧바로 번역자들을 섭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지만,<sup>17)</sup> 도대체 어떻게 오천석이 번역자로 선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1953년 5월 중순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국무성에 보낸 비망록에서, “베넷의 저서가 1952년에 국무성에서 번역되었지만, 대사관의 요청으로 번역 원고가 부산으로 송달되어, 현지에서 국제신문 기자인 이진수의 수정을 거친 후에 대사관이 제공한 용지로 윤희배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초판 5천부 가운데 5백

---

14) USIA (1958). *Books Published Abroad*. RG 306, Records Relating to the Book Program, 1966~1999, Box 2.

15) Letter from Everett F. Drumright, Charge d'Affaires ad interi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October 23, 1950; Operation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Seoul, November 16, 1950. RG 306, Box 11.

16) Office memorandum from Joan Birkleland, ILI, DOS to Margaret Conlan, ILI, DOS, November 13, 1950. RG 306, Information Center Service/Publications Division/Translation Branch, Country and Subject File: 1945~1957(이하에서는 Entry P 50으로 표기), Box 11. 이것은 아마도 국무성이 육군성으로부터 미군정의 도서 번역 사업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인계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7) Office memorandum from Philip G. Hodge, ILI to Robert A. Conrads, TC, November 29, 1950, RG 306, Entry P 50, Box 11.

부를 대사관이 구입했다”고 밝혔다.<sup>18)</sup>

마지막으로 군정청 외무처 직원이었던 최우철이 1947년 6월에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로 뉴욕의 국제교육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에서 발간했던 양칭근의 <미국의 대학생들>을 번역해서 국제문화교류협회를 발행처로 출판했다(Yang, 1945/1947). 역자는 ‘머리 말씀’에서 이 책의 원본을 1946년에 미국 방문 조선교육사절단의 안내를 맡았던 외무처 소속의 허쯔(P.B. Hertz) 소령으로부터 입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 곳의 요청을 받아 번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번역의 주요 동기가 미국 유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비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유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미국 대학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신교육 건설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번역 과정에서 특히 문교부의 앤더슨(Anderson)씨에게 지도편달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Yang, 1945/1947, 2쪽). 이처럼, 역자가 이 책을 역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미국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관련 문서를 통해 이 도서의 역간을 위해 군정청과 전쟁성 대민사업국 간에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군정청은 1947년 2월 초에 전쟁성의 대민사업국에 이 책의 번역권 허가를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대민사업국은 국제교육연구소에 이 도서의 역간이 한국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협조를 구했다.<sup>19)</sup> 이에 대해, 국제교육연구소 측은 이미 1946년 말에 연구소 소장인 두간 박사가 군정청 외무처의 허쯔 소령에게, 원저자와 출판사의 이름을 밝힐 것, 번역서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을 것, 그리고 번역의 정확성을 담보해야 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번역을 허락했다고 회신했다.<sup>20)</sup> 그리

---

18) Operation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May 12, 1953, RG 306, Entry P 50, Box 11. 이 비망록에서 말하는 번역 및 출판 과정을 확인하려면 다음 문서를 참고할 것. Operation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Pusan, March 19, 1952; Operation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April 18, 1952; Operation memorandum from Philip Hodge, ICS to Robert A. Conrads, TC, Department of State, May 20, 1952; Operation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Pusan, October 9, 1952, RG 306, Entry P 50, Box 11.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7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번역본은 모두 1947년에 발행된 것들이고 1952년 판은 어느 도서관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1952년 판은 전시 상황이라 배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허은(2013)은 이 번역서의 출간 연도를 1952년이라고 했지만, 윤현배 출판사가 아니라 1947년 판을 발행했던 국제문화공회에서 출간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608쪽).

19) Letter from Daniel Noce, Major General, Chief, CAD, War Department to Institute of International Institute, February 7, 1947, RG 306, Entry P 52, Box 3.

20) Letter from Edgar J. Fisher, Assistant Direct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to General Daniel Noce, Chief, CAD, War Department, May 21, 1947; Letter from Stephen Duggan, Director of

고 1947년 6월에 전쟁성 내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보병신문사(Infantry Journal Inc.)와 국제교육연구소 간에 공식적으로 한국어 번역권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것은 한국에서 번역서가 이미 출간된 후였다.<sup>21)</sup>

이 책은 1장에서 미국 대학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즉 대학 교육 제도의 변천 과정이나 다양한 전공 분야 등을 소개한 후에, 2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유학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예컨대 대학 지원 방법, 여권과 비자 취득 방법, 대학 선택, 주거지 선정 방법, 외국인 학생 등록, 오리엔테이션, 미국인들의 예법과 습관, 인종 차별 극복 방법, 유학비용 해결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처럼 이 책은 실제로 미국 대학 소개와 미국 유학을 위한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유학을 계획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군정청 일부 관리들이 미국 도서를 번역 출판한 것은 군정청 문교부가 직접 역간했던 〈민주주의 교육법〉의 경우와 달리, 공적인 업무 차원이 아니라 순수한 개인적인 관심이나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미군 지휘 하의 군정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국인 관리들에 의한 미국 도서의 번역 작업은 일반인들에 의한 것과는 명백히 다른 함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국인 관리들의 미국 도서 역간은 미국 정부 기관이나 관계자들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교육 부장이었던 오천석이 번역한 〈아메리카민주주의성장사〉는 군정청이 관리하던 조선교학도서주식 회사에서 제작되었고, 외무처 직원이었던 최우철이 번역한 〈미국의 대학생활〉과 관련해서는 같은 외무처 소속의 미군장교였던 허츠 소령이 원저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원저의 발행처였던 미국의 국제교육연구소에 번역권 허가 신청을 대행해주었다.<sup>22)</sup> 더욱이, 군정청 관리들이 번역했던 세 도서들의 내용이 한결같이 미국이 당시 한국에서 추구했던 선전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 즉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제도 및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한국에 전파하고 이식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들려는 목표와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는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to Major Paul B. Hertz, Office of Foreign Affairs, Cultural Relations Division,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ovember 21, 1947(6), RG 306, Entry P 52, Box 3.

21) Letter from J. Charles Haidinger, Assistant Treasurer,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to Chief, New York Field Office, Reorientation Branch, CAD, Army Department, June 23, 1949, RG 306, Entry P 52, Box 3. 이 번역본의 판권지에는 발행일자가 6월 1일로 제시되어 있다.

22) 문교부 편수사였던 최병철이 번역한 〈민주주의와 교육〉은 앞의 도서들과 달리 미국이 그것의 역간 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점에서, 군정청 관리들에 의한 미국 도서의 역간 작업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만 말하기 어렵다고 하겠다(차재영, 1994).

#### 4. 미국공보원의 도서 번역 출판 사업과 역간 도서의 성격

앞에서 보았듯이, 주한 미국공보원은 미군정 종식을 전후한 시기에 <국제연합과 세계평화>, <동물농장>, 그리고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 등 3종의 도서를 역간했다. 여기에서는 이 3종의 도서 역간 과정과 그것들의 성격을 관련 자료에 의존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골트의 <국제연합과 세계평화>는 미국공보원이 역간한 첫 도서였다. 이 번역서의 판권지에는 국제연합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치른 5·10선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7월 25일에 미국공보원이 발행인이 되어 이 책을 직접 발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Galt, 1947/1948). 일반적으로 한국인을 역자로 했던 다른 번역서들과 달리 이것은 미국공보원이 역자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역자 서문을 실지 않아서 번역 목적이나 출판 과정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정보도 이 책에서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 정치상황을 되짚어보면, 이 번역서의 발행 배경이나 목적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 열렸던 미소공위가 실패로 끝난 뒤에 미국의 주도로 1947년 11월의 유엔 총회에서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안이 통과되자, 미국은 한국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번역서가 발행된 직후에 일부 신문에 판매처인 대권사의 이름으로 이 책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그 문안에 이 책의 발행 목적이나 동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sup>23)</sup> 그것은 한국에 수립된 독립정부가 세계 각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9월의 국제연합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어서, “국제연합의 조직, 성격, 기능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긴급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책을 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경향신문, 1948.8.11., 1면). 말하자면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미국의 주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의 지원으로 수립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한국 국민들에게 정당화시킬 목적으로 미국공보원이 이 도서를 역간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23) 이 광고는 미국공보원의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미국공보원이 직접 게재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공보원은 1950년대 초까지도 미국 도서 번역 출판을 맡은 한국 출판업자들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역간된 도서의 신문광고를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Telegram from USIS, Pusan to USIA, September 16, 1953, RG 306, Entry P 50, Box 11.

사실 이러한 배경이나 목적에 따라, 육군성의 대민사업국과 주한 미국공보원은 1948년 초부터 국제연합에 관한 안내 책자를 역간하기 위해 긴급하게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1948년 1월 26일에 육군성의 도서번역 사업 담당자는 스투어트 미국공보원장과의 교신에서 골트의 〈국제연합과 세계평화〉, 아르네(Sigrid Arne)의 *The United Nations Primer*, 그리고 피셔(Louis Fisher)의 *You and the United Nations* 등 3종의 관련 도서를 제시하면서, 이들 가운데 골트와 피셔의 저서는 이미 번역권을 확보하고 있고, 아르네의 저서도 미국공보원이 번역을 원할 경우 출판사와의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sup>24)</sup> 이에 미국공보원은 골트의 저서를 역간하기로 결정해 육군성 대민사업국에 계약을 요청했고, 대민사업국은 1월 30일에 이 요청을 병참감실에 전달했다.<sup>25)</sup> 당시 대부분의 번역서들은 역간 작업에 들어가기 전 육군성 대민사업국과 미국공보원 간에 저작권 관련 논의가 최소한 수주 내지는 수개월이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이 책은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대단히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공보원은 대민사업국으로부터 미국 출판사와의 번역출판권 계약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역간 작업을 추진해 신속하게 출판을 마무리하고서 한 달 후인 1948년 8월 하순에 한국 출판사와의 계약서 사본 2부를 대민사업국에 발송했고, 대민사업국은 다시 10월 초에 이 계약서 사본을 미국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26)</sup>

이 도서의 내용은 총 8개장으로 구성되어, 먼저 국제연합이라는 기구가 창설된 배경과 경과를 정리하고, 이어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양한 내부 조직에 대한 간명한 설명을 제공해 이 기구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미국공보원은 이 번역서를 무려 3만부나 발행했는데,<sup>27)</sup> 당시 대부분의 도서들이 기껏해야 초판 1천부 정도로 발행되던 현실에서 보자면 이것은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다(이중연, 2005, 41-42쪽 참조). 그리고 판권지에 가격이 150원

24) Teleconference with Mr. Stewart, OCI, Korea prepared by Mrs. Flunder, ICM, CAD, Army Department, January 26, 1948, RG 306, Entry P 52, Box 3.

25) Letter from Edgar Erskine Hume, Colonel, Chief, Reorientation Branch, CAD, Army Department to OQMG, Civilian Supply Division, Stock Control Branch, Army Department, January 30, 1948, RG 306, Entry P 52, Box 3.

26) Letter from James L. Stewart, Director, OCI, Korea to Reorientation Branch, CAD, Army Department, August 20, 1948, RG 306, Entry P 52, Container 4; Letter from Edgar Erskine Hume, Brigadier General, GSC, Chief, Reorientation Branch, CAD to Thomas Y. Crowell Company, October 9, 1948, RG 306, Entry P 52, Box 3.

27) Letter from Marian Macleod, Thomas Y. Crowell Company to Edgar Erskine Hume, Brigadier General, Chief, Reorientation Branch, Special Staff, US Army, April 6, 1949, RG 306, Entry P 52, Box 3. 미국 출판사는 이 서신에서 대민사업국의 사업 책임자에게 앞의 계약서 사본에 근거해 저작권료 처리에 대해 문의하면서, 한국 출판사가 초판 3만부를 발행한 사실을 언급했다.



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번역서가 일반 서적상들을 통해 거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미국 정부의 해외 도서 번역 사업 시행 방식을 고려해 보면, 미국공보부가 이 번역서를 대량으로 확보해 한국 정부 기관이나 학교, 도서관, 그리고 일부 엘리트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을 수도 있다.<sup>28)</sup> 게다가 이 번역서가 미국공보원이 UN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미국공보원은 오웰의 〈동물농장〉을 도서 번역 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로 보고했다. 이 번역서의 판권지에는 발행일이 1948년 10월 31일, 역자는 김길준, 발행처는 국제문화협회 출판부, 인쇄처는 대건인쇄소로 제시되어 있다(Orwell, 1945/1948). 이것은 1945년 8월에 영국에서 처음 〈동물농장〉이 발매된 이후 해외에서 역간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Rodden, 1989; 박홍규, 2002). 이 도서의 ‘역자서’는 역간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청년들이 “독제의 모순과 피지배자의 비애”를 그린 이 소설을 읽고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어느 것이 참된 민주주의이며 또 어느 것이 민족결합의 가장 공평한 생활방식”인지 깨닫게 된다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그 정치적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Orwell, 1945/1948, 3, 5쪽). 당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가장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던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동물들을 등장시켜 전체주의 사회를 풍자했던 이 소설은 한국 국민들에게 소련이 전체주의 체제임을 부각시킴으로써 반소·친미 의식을 갖도록 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역간된 것으로 이해된다.

2절에서 기술했듯이, 주한 미국공보원은 매우 일찍부터 오웰의 〈동물농장〉의 역간에 관심을 보였다. 이 책이 1945년 8월에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47년 6월에 미국공보원은 전쟁성 대민사업국에 15종의 다른 도서들과 함께 그것의 번역 저작권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sup>29)</sup> 다만 이때는 미국공보원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 대민사업국이 현지의 제작 능력을 고려해 재고를 요구하는 바람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지만, 1년여 후에 대민사업국이 이 책의 한국어 번역권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1948년 8월 하순에 육군성 대

---

28) 1952년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국무성에 미공보원의 도서 번역 사업 정책의 변화에 대해 보고하면서, 무료로 번역서를 배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현지 출판업자에게 위탁해 번역서를 제작,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군정기부터 1952년 초까지는 미국대사관이 도서 번역 사업으로 출간된 번역서를 대량으로 확보해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증정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Operations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April 18, 1952, RG 306, Entry P. 50, Box 11.

29) Teleconference with Stewart, OCI, Korea prepared by Mrs. Flunder, ICM, CAD, War Department, July 15, 1947, RG 306, Entry P 52, Box 3.

민사업국의 재정향과는 동경의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이 도서의 일본어 번역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작권 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다.<sup>30)</sup> 주목할 점은 번역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수 내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앞의 〈국제연합과 세계평화〉의 경우처럼 이 도서의 한국어 번역 계약도 불과 2~3일 만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이다.<sup>31)</sup> 이처럼 미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에 〈동물농장〉의 한국어 번역본이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전격적으로 출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역자인 김길준은 1946년 7월부터 군정청 공보부 공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946년 말부터 정부 수립 때까지는 군정장관인 러치(Archer L. Lerch)소장과 후임인 딘(William F. Dean)소장의 고문직을 맡았다(경향신문, 1946.12.17.; 동아일보, 1946.7.12., 1949.6.18.).<sup>32)</sup> 한편 이 도서의 역간을 추진한 주체와 관련해, 안미영(2012)은 미국의 해외공보국(USIA)이 이 소설을 3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고 배포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로덴(Rodden, 1989)과 박홍규(2002)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이 도서의 “국내번역이 미군정과 정부에 의해 기획된 것”(354쪽)이라고 주장했다.<sup>33)</sup>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달리, 미국의 공식 문서에는 주한 미국공보원이 단독으로 이 도서의 역간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49년 12월에 미국공보원이 육군성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동물농장〉은 〈국제연합과 세계평화〉나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와 마찬가지로 미국공보원이 “용지를 공급하고 번역료와 인쇄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직접 출판”했으며, “책 마지막 면의 간기(credit box)에 제시된 출판업자는 명목상의 발행인 역할을

30) Letter from B. H. MacMahon, Colonel, Deputy Chief, Reorientation Branch, CAD, Army Department to J. I. Greene, Colonel Infantry Journal, Army Department, August 20, 1948, RG 306, Entry P 52, Box 3.

31) Letter from Michael Weyl, Chief, Libraries & Book Rights Section, NYFO, Reorientation Branch, CAD, Army Department to Albert Daub, General Manager, Stechert-Hafner, Inc, September 21, 1949, RG 306, Entry P 52, Box 3. 이 서신에 따르면, 육군성의 보병신문사(Infantry Journal)가 이 소설의 한국어 번역권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1948년 8월 22일이었다.

32) 김길준의 해방 이전 이력에 대해서는 상이한 정보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이 번역서의 발행처인 국제문화협회의 간사였던 김을한(1956)의 회고에 따르면, 김길준은 일제 시기 총독부 당국의 압력으로 본인이 원했던 미국 대신에 필리핀으로 유학해 학위를 받은 후 그곳에서 동양학 교수가 되었고, 태평양 전쟁 중에는 필리핀인들의 대일항쟁에 가담했다가 맥아더 휘하의 미군에 합류했으며, 종전 후에는 하지중장의 24군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아놀드 군정장관의 고문으로 일했다고 한다. 반면에 안미영(2012)은 민족문제연구소의 해외친일인명 수록 명단을 근거로 김길준이 친일 관료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33) 미국의 해외공보국은 1953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Henderson, 1969), 1948년에 한국에서 〈동물농장〉의 역간 작업을 지원한 것은 육군성 대민사업국의 도서 사업 관련 부서였다고 판단된다.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sup>34)</sup> 사실 이 도서가 역간된 시기는 한국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도서 역간에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번역서의 초판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국제연합과 세계평화>의 경우처럼 미국공보원이 선전 목적으로 다량의 부수를 확보해 한국의 각 기관과 주요 인사들에게 증정 배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크라브첸코의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의 역간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원식의 번역으로 국제문화협회에 의해 1948년 9월과 1949년 3월에 상·하 두 권으로 출판된 것으로 되어 있다(Kravchenko, 1946/1948, 1949). 후일 국제문화협회의 김을한(1956.2.2.~4.)이 경향신문에 연재한 기고문을 통해 이 책을 역간하게 된 계기나 동기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을한은 미군정 말기에 미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김동성(당시 합동통신사 사장)을 위해 국제문화협회가 개최한 귀국 환영회에서 김동성으로부터 이 책을 처음 소개받고 출판 의사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김을한, 1956.2.2.).<sup>35)</sup> 그는 이 책이 미국에 망명한 소련의 전 관리가 소련 사회의 실상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일부가 소련의 점령 하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스투어트 미국공보원장을 만나 번역출판권을 교섭했고, 후자로부터 미국무성을 통해 원작자의 허가를 획득해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즉각 번역 작업에 착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을한의 국제문화협회는 결국 미국공보원을 통해 출판사와 저자의 허가를 얻어 이 책의 번역서를 상·하 두 권으로 출판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36)</sup>

하지만 자신이 미국공보원장을 찾아가 번역출판권을 교섭했다는 김을한의 주장은 당시 한국의 출판사들이 대부분 열악한 경영 상태로 인해 외국 저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해버리던 관

34) Letter from Walter H. Drew, Editor, USIS, Publications Section, Korea to Harriet L. Rourke, Acting Chief, Book Rights Section, Reorientation Branch, NYFO, Army Department, December 3, 1949, RG 306, Entry P 52, Box 3.

35) 김동성은 미군정기에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 방문은 1945년 말부터 1946년 중반까지 합동통신사의 제휴사인 AP통신사 초청에 따른 것이었고, 두 번째는 1946년도 말부터 1947년 3월까지 미국무성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김을한, 1981: 동아일보, 1946.11.27., 1947.3.29.). 따라서 김동성이 미군정 말기에 미국을 방문했다는 김을한의 기술은 오류라고 생각된다.

36) Letter from William A. Curtin, Jr. Lt. Colonel, Acting Deputy Chief, Reorientation Branch, CAD, Army Department to Victor Kravchenko, Charles Scribner's Sons, April 29, 1948; Teleconference with Mr. Stewart, OCI, Korea prepared by Mrs. Flunder, ICM, CAD, War Department, July 12, 1948, RG 306, Entry P. 52, Box 3; Letter from Edgar Erskine Hume, Brigadier General, Chief, Reorientation Branch, CAD, Army Department to Director, Office of Civil Information, USAFIK, July 28, 1948, RG 306, Entry P 52, Box 4..

행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더구나 당시는 극심한 용지 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출판사가 수백 쪽에 달하는 책을 상·하 두 권으로 역간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일이었다.<sup>37)</sup> 추리를 해보자면, 김을한이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미국공보원의 번역 제안을 받았고, 미국공보원 측으로부터 번역료와 인쇄비 지불과 함께 번역출판권 확보를 약속받아 일을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한국 정부 수립 이후에 미국공보원이 국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책의 번역과 인쇄를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용지를 제공했으며 발행처는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고 한 내용과도 일치한다.<sup>38)</sup>

한편 이 책의 '역자서'는 미·소간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 책이 개방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미국과 달리 철의 장막에 가려진 소련 공산주의 사회의 실상을 제시하고 있어서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Kravchenko, 1946/1948).<sup>39)</sup> 이것은 당시에 미국이 한국에서 시행했던 선전 정책의 주요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크라브첸코는 이 자서전에서 스탈린의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노동자들과 간부들 간의 소득 격차나 주거 환경의 차이, 농업집산화 과정에서 자행된 농민에 대한 폭력, 스탈린에 의한 대숙청 등 소련 사회의 내부 모순을 폭로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냉전의 최전선 국가 혹은 '이념적 전쟁터'로 간주되고 있던 한국에서 이 책의 효용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김을한(1956.2.4.)은 이 번역서의 초판 3천부가 사흘 만에 매진되는 등 베스트셀러가 되어 국제문화협회의 경영 사정이 좋아졌다고 회고했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미국공보원이 번역료와 인쇄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했다면, 발행처 역할을 맡았던 국제문화협회는 판매 수입 전부를 순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 상태가 호전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공보원이 관여했던 다른 번역서와 마찬가지로, 이 번역서의 판매나 배급을 위해서도 미국공보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해방기 한국의 출판계 상황을 분석했던 이중연(2005)은 당시의 신문 기사(태양신문, 1949.10.6.)에 의거해,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가

37) 당시 한국 출판업계의 저작권 무시 관행과 용지 부족 사태는 1949년 말 스텐우트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espatch No. 755 from American Embassy, Korea to Department of State, "Copyright Assignment," December 1, 1949.

38) Letter from Walter H. Drew, Editor, USIS, Publications Section, Korea to Harriet L. Rourke, Acting Chief, Book Rights Section, Reorientation Branch, NYFO, Army Department, December 3, 1949.

39) 김을한은 이 책의 역자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증언을 남겼는데, 그는 번역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책을 10조각으로 나누어 번역을 맡기기로 하고,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역자로 섭외했다고 한다. 이처럼 원래 역자가 1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출판된 번역서에는 역자명이 이원식으로 표기되었는데, 김을한에 따르면 이는 가공의 인물이었다는 것이다(김을한, 1956.2.4.).

1940년대 후반에 베스트셀러였다고 기술하면서도, 이 번역서가 미국공보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크라브첸코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소련에 대한 독자층의 인식이 비판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던 점, 책의 내용이 최근까지 방송 자료로 낭독되었던 점, 그리고 증언적 성격의 기록물이 인기를 끌었던 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107-108쪽). 하지만 그는 국내 자료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이 번역서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미국공보원의 개입과 지원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미군정기 미국의 도서 번역 활동이 군정청의 일부 부서들과 관리들, 그리고 미국공보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정청의 부서들과 관리들은 미국무성의 도서 번역 사업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한편으로는 점령 정책 수행상의 필요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그것의 교육 방법, 교육 철학, 미국의 대학, 그리고 미국의 역사 등을 소개하는 도서들을 번역해 출판했던 반면에, 미국공보원은 국제연합에 대한 개설서와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를 풍자한 소설, 그리고 미국에 귀화한 소련 전직 관리의 자서전 등의 역간을 주도했다.

사실 미군정기에 군정청의 부서들과 관리들, 그리고 미국공보원에 의해 번역 출판된 미국 도서들은 모두 합쳐서 10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극소수였다.<sup>40)</sup> 하지만 총수가 적다고 해서 그것들이 당시 한국 출판계나 독서계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군정청 부서와 관리들, 그리고 미국공보원은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점령 정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도서들을 직접 역간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나아가 이렇게 출판된 번역서들을 대량으로 확보해 다양한 기관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했고,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의 경우처럼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40)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한국에서 역간된 외국 도서들의 총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다. 1949년에 조선출판문화협회가 출간한 <출판대감>은 해방 이후 한국에서 간행된 단행본의 전체 총수를 1945년에 10종, 1946년에 근천 종, 1947년에 950여종, 1948년에 1176종이라고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번역서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 같이 당시 군정청이나 미국공보원의 주도로 역간된 도서들은 분명 한국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미군정기 출판계와 독서계는 최소한 1947년까지는 좌익 성향의 도서들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박지영, 2009; 이종연, 2005). 이에 따라 미군정 관계자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거나 소련의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도서들을 선정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역간하고 대량으로 배포함으로써, 출판계와 독서계의 세력 판도에 변화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사상이나 이념 부문에서 새로운 헤게모니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미군정기에 출판 부문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이념적 투쟁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지영(2009)에 따르면,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당시에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몇몇 번 역서의 제목에 포함되었는데, 예컨대 레닌의 〈민주주의와 독재(1946)〉, 학술연구회 편역의 〈카니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승리(1947)〉, 루이스 스트롱의 〈쏘동맹 민주주의(1947)〉 등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연결된 민주주의를 함의했던 반면에, 미국 출판사인 맥밀런회사의 〈민주주의 교육법(1946)〉,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1947)〉, 베넷의 〈아메리카민주주의성장사(1947)〉 등에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함의했던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1946년 이후 미국은 점점지 한국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려는 목표 하에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 폭넓은 선전 활동을 전개했는데, 위의 미국식 민주주의에 관한 3종의 번역서들이 군정청의 교육부와 다른 부서의 관리들에 의해 발행된 것도 그와 같은 선전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공보원이 사실상 미군정기가 종식되는 시기를 전후해 오웰의 〈동물농장〉과 크라브첸코의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를 역간한 것도 소련의 전체주의 체제의 모순이나 문제점들을 비판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을 제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군정기 이후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상 좌익 성향 도서의 출판과 유통이 완전히 근절되었다. 출판계의 지형이 이러한 양상으로 변화된 원인을 추론해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이념적 성향이 좌편향에서 우편향으로 극단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일 것이고(손호철, 1991), 다음으로 이승만 정부 하에서 국가의 검열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봉범,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았듯이 미군정기 미국의 도서 역간 활동은 실적이 빈약하기는 했지만, 한국 출판계와 독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한국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의 변화를 추동해내는 데에도 일정하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인철 (1996). <한국기독교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경향신문 (1946.12.17.). 리취장관 년내 귀임: 영전하는 김길준씨. 1면.
- 경향신문 (1948.8.11.). 대망의 진서 수출래: 국제연합과 세계평화 (광고). 1면.
- 군정청문교부 (역) (1946). <민주주의 교육법>. (원저 미상). 서울: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김균 (2000). 미국의 대외 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문학보>, 44권 3호, 40-75.
- 김동구 (1995). <미군정기의 교육>. 서울: 문음사.
- 김동성 (1948). <미국인상기>. 서울: 국제문화협회.
- 김민환 (2001). <미군정 공보기구의 언론활동>. 서울: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 김병철 (1975). <한국근대변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김상훈 (2015). 미군정기 교육정책 수립과 한국인의 역할. <역사연구>, 28권, 119-163.
- 김용권 (1967). 한국문학에 끼친 미국의 영향과 그 연구. <아세아연구>, 10권 2호, 135-149.
- 김을한 (1956.2.2.~4.).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 '베스트셀러' 기후 이야기. <경향신문>, 4면.
- 김을한 (1956). <인생잡기>. 서울: 일조각.
- 김을한 (1981). <천리구 김동성>. 서울: 을유문화사.
- 동아일보 (1946.7.12.). 박종만씨 충남지사 김길준씨 공보국장. 1면.
- 동아일보 (1946.11.27.). 재미동포여 단결하라-김동성씨 화부서 강조. 1면.
- 동아일보 (1947.3.29.). 대일배상회의-나와 조선과는 관계가 깊다. 1면.
- 박용규 (1988). <미군정기 한국언론 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2009). 해방기 지식 장의 재편과 '번역'의 정치학. <대동문화연구>, 68권, 423-480.
- 박홍규 (2002). <조지오웰: 자유 자연 반권력 정신>. 서울: 이학사.
- 손호철 (1991). <한국정치의 새 구상>. 서울: 풀빛.
- 안미영 (2012). 해방이후 전체주의와 조지 오웰 소설의 오독. <민족문학사연구>, 49권, 339-374.
- 이나미 (2004). 미군정기의 민주주의 교육: 일제시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3권 1호, 179-219.
- 이봉범 (2008).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김열. <한국문학연구>, 34집, 7-49.
- 이중연 (2005). <책, 사슬에서 풀리다: 해방기 책의 문화사>. 서울: 해안.
- 장영민 (2001). 미군정기 미국의 대한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16호, 115-156.
- 조선출판문화협회 (1949). <출판대감>. 서울: 조선출판문화협회.

- 제어네스트 피셔 (1947). <민주주의적 생활>. 서울: 남조선과도정부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
- 차재영 (1994). 주한 미점령군의 선전활동 연구. <언론과 사회>, 5호, 29-52.
- 차재영 (2016). 1950년대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와 의미. <한국언론정보학보>, 78호, 206-242.
- 태양신문 (1949.10.6.). 가을의 독서계: 문학서는 부진, 시사물이 호조, 2면.
- 허은 (2008).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허은 (2013). 미국의 문화냉전과 '자유 동아시아'의 구축, 연쇄 그리고 균열: 미국정부의 도서계획과 한국 사회 지식인의 인식. <민족문화연구>, 59호, 559-611.
- 홍성연 (2014). 민주주의와 교육/존 듀이. <http://classic.ajou.ac.kr/SEA/201407/FC8E78DE2F9A006.pdf>
- 홍용선 (1995). <광복 후의 신교육운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An, J. C. (2010). No Distinction between Sacred and Secular: Horace H. Underwood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934-1948,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3(2), 225-246.
- Armstrong, C. K. (2003).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2(1), 71-99.
- Barnhisel, G. (2013). Cold Warriors of the Book: American Book Programs in the 1950s. *Book History*, 13(1), 185-217.
- Benet, S. V. (1944). *America*. 오천석 (역) (1947). <아메리카민주주의성장사>. 서울: 국제문화공회.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최병칠 (역) (1947).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연학사.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오천석 (역) (1948).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국제문화관.
- Galt, T. (1947). *How the United Nations Works*. 미국공보원 (역) (1948). <국제연합과 세계평화>. 서울: 미국공보원.
- Hench, J. (2010). *Books as Weapons: Propaganda, Publishing, and the Battle for Global Markets in the Era of World War II*,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Henderson, J. (1969).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NY: Frederick A. Praeger.
- Kravchenko, V. (1946). *I Chose Freedom*. 이원식 (역) (1948, 1949).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 상, 하권. 서울: 국제문화협회.



- Ochi, H. (2010). *Democratic Bookshelf: American Libraries in Occupied Japan*. Barnhisel, G. & Turner, C. (Eds.) *Pressing the Fight*. (89-111). Amherst,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Orwell, G. (1945). *Animal Farm*. 김길준 (역) (1948). <동물농장>. 서울: 국제문화협회 출판부.
- Rodden, J. (1989). *The Politics of Literary Reputation: The Making and Claiming of "St. George" Orwe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unders, F. S. (1999). *The Cultural Cold War: The CIA and the World of Arts and Letters*, N.Y.: The New Press.
- US Commander in Chief, Army Forces Pacific (1947.1.). *Summation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Summation)*, 16.
- US Department of State. (194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Press.
- Yang, C.-K. (1945). *Meet the USA*. 최우철 (역) (1947). <미국의 대학생활>. 서울: 국제문화교류협회.

최초 투고일 2018년 4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8년 5월 30일

Abstract

## Book Translation as Propaganda

U.S. Book Translations during the Military Occupation of South Korea, 1945-1948

**Jae Young Cha**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book translation efforts of the U.S. as a part of its propaganda and cultural programs to build up an anti-communist bridgehead during the U.S. military occupation of South Korea for 3 years since August 1945. This study tackles three main questions: first, in what context and in what manner the book translation efforts were performed by the U.S.; second, in what procedure each of those books was translated to be published and what characteristics did each of those books have; finally, what influences did the translated books leave on the minds and thoughts of the Koreans. This study analyzed the documents collected from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and some major Korean libraries. It was found that the U.S. book translation efforts started in accordance with the reinforcement of the U.S. propaganda and cultural activities in 1946, when Korea came to be regarded by the U.S. leaders as an ideological battleground. At that time, some departments and their official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itiated the translation of U.S. books. And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OCI),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commander of the U.S. Army Forces in Korea in 1947, was also involved in the book translation program of U.S. Department of State.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those books translated through the efforts was less than 10, they were evaluated to be pretty effective in influencing the 'minds and thoughts' of the Koreans by attacking the Soviet communism and promoting American liberal democracy.

**Keywords:** U.S. Military Occupation of Korea, Cold War, propaganda, book translation